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전당, 전군, 전민이 당중앙위원회 제 7기 제 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힘있게 발령하고있는 격조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E. C.》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이다》를 발표하신 35돐을 맞이하고있다.

주제 71(1982)년 10월 17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E. C.》의 기치말에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힌 강령적문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E. C.》의 길고도 역력한 투쟁에서 자라나 간고한 투쟁과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으며 영광스러운 당의 력사대업을 빛낸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린 권위있고 존엄높은 주체의 혁명적당이다.》

주체의 혁명은 당의 강화를 위한 혁명적 생명선이다. 《E. C.》의 기치말에 주체의 혁명을 뜻하여 이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혁명적 성격을 굳건히 고수하고 그 명도적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건설에서 끊임 없는 양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는 길이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이 《E. C.》의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며 혁명의 강위력한 항모부, 모든 승리의 조지

자, 항도자로 더욱 강화발전되어온 불멸의 년대기이다. 이 나날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계급주의의 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과 법외세력들이 계속되었으며 민족의 대국상, 고난의 행군과 같은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도 있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적들의 야만적인 제재와 침략책동은 국도에 달하였다. 하지만 《E. C.》의 리념이 새겨진 우리의 당기는 추호의 변색도 없이 더욱 기세차게 나뉘어오르며 당의 령도말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장엄한 새시대가 펼쳐졌다. 이것은 《E. C.》의 기치말이 우리 당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정하는 력수년의 령명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E. C.》의 정신과 유익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은 백승만을 멸할것 아니라, 이것이 70여년에 걸치는 우리 당력사의 주제는 총화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벅속없이 새긴 철리이다.

《E. C.》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철저히 보장된 참다운 유일의 당이다.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 나가는 명도적조치이며 당건설에서 기본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이다.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는것은 주체적당건설사상과 리론에서 기본핵을 이룬다. 《E. C.》의 열렬투사들은

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였으며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충직하게

반응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모든 당조직들과 우리 나라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도록 하는데서 선봉적, 핵심적역할을 한것은 《E. C.》의 신자들이었다. 우리 당은 《E. C.》의 한결 융유정신을 이어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의 당건설의 새로운 장을 펼쳐

우리는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

오늘 우리 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높이 모시어

우리는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

《E. C.》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은 생기발달하고 전후력이 강한 불멸의 당이다.

《E. C.》는 시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새 세대 열렬 청년들로 무인 혁명적전위조직이

《E. C.》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당창건의 골간으로 되었다. 《E. C.》의 열렬투사들은 평범한 공중속에 들어가

《E. C.》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은 생기발달하고 전후력이 강한 불멸의 당이다.

《E. C.》는 시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새 세대 열렬 청년들로 무인 혁명적전위조직이

《E. C.》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은 생기발달하고 전후력이 강한 불멸의 당이다.

《E. C.》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은 생기발달하고 전후력이 강한 불멸의 당이다.

《E. C.》는 시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새 세대 열렬 청년들로 무인 혁명적전위조직이

로 이끄시었다. 우리 당은 선군의 위력으로 지구위에 사회주의가 살아 있고 그 힘은 계급주의의 강권과 전

《E. C.》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은 생기발달하고 전후력이 강한 불멸의 당이다.

《E. C.》는 시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새 세대 열렬 청년들로 무인 혁명적전위조직이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는 신념의 강자들로

자 강 도 당 위 원 회 에 서

단결로 시작되고 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기 령도자와 사상도 뜻도 승결과 같이하리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일심단결의 력사, 백전백승의 력사이다.

뜻깊은 《E. C.》결정기념일을 맞으며는 나라 찬란민국은 우리 당의 력사적부름을 면하며 주시고 조선로동당을 우리 혁명의 강위력한 전투적항모부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적업적을 가슴깊이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력수년의 령도말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불같은 결의를 넘쳐있다.

자강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혁명적기상이 조선로동당 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과업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가슴마에 경애하는 력수년께서 계시어 우리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며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선전선동활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얼마전 도당위원회에서는 도급기관 일꾼들이 참가한 가운데 특화전집돌보여주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적들의 반공화국 고립압박정세속에서도 도안의 고립민들이 비장한 애국열의를 발휘하여 건설한 홍추정년3호발전소, 전정로병보양소, 최현초등학교, 중동농촌 등 여러 대상들과 현재 건설중이 있는 도에숙주강, 도복출판, 강계소장장을 비롯한 20여개 대상들에 대한 특화전집돌보여주기회 진행되고있다.

이런것은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일꾼들, 근로자들의 불같은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특화전집돌보여주기회를 도안의 시, 군들에 내려보내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시청하게 함으로써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산악같이 펼쳐나선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막을수 없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깊이 새겨주었다.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세게 할 때 수령을 변함없이 받들어모시는 절대적인 충정의 마음이 우리나오게 된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는데 큰 힘을 냈다.

선전선동부 일꾼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수령에 대한 불같은 충성과 필승의 신념을 이어주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지난 9월 중순 도당직의강연장사들로 강연회, 강연회를 조직하고 그들이 강연장사로서 단연양소

중강도당위원회에서는 가을 전이가 벌어지는 전투장들에 방

《E. C.》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은 생기발달하고 전후력이 강한 불멸의 당이다.

《E. C.》는 시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새 세대 열렬 청년들로 무인 혁명적전위조직이

《E. C.》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은 생기발달하고 전후력이 강한 불멸의 당이다.

《E. C.》는 시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새 세대 열렬 청년들로 무인 혁명적전위조직이

초 석

◇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E. C.》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은 생기발달하고 전후력이 강한 불멸의 당이다.

《E. C.》는 시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새 세대 열렬 청년들로 무인 혁명적전위조직이

《E. C.》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은 생기발달하고 전후력이 강한 불멸의 당이다.

《E. C.》는 시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새 세대 열렬 청년들로 무인 혁명적전위조직이

《E. C.》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은 생기발달하고 전후력이 강한 불멸의 당이다.

《E. C.》는 시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새 세대 열렬 청년들로 무인 혁명적전위조직이

《E. C.》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은 생기발달하고 전후력이 강한 불멸의 당이다.

《E. C.》는 시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새 세대 열렬 청년들로 무인 혁명적전위조직이

《E. C.》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은 생기발달하고 전후력이 강한 불멸의 당이다.

투철한 복무관점을 가져야 한다

장림광산 초급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에서

안들을 내놓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얼마후에는 고기와 남새, 의복을 생산할수 있는 토대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 때

서두수발전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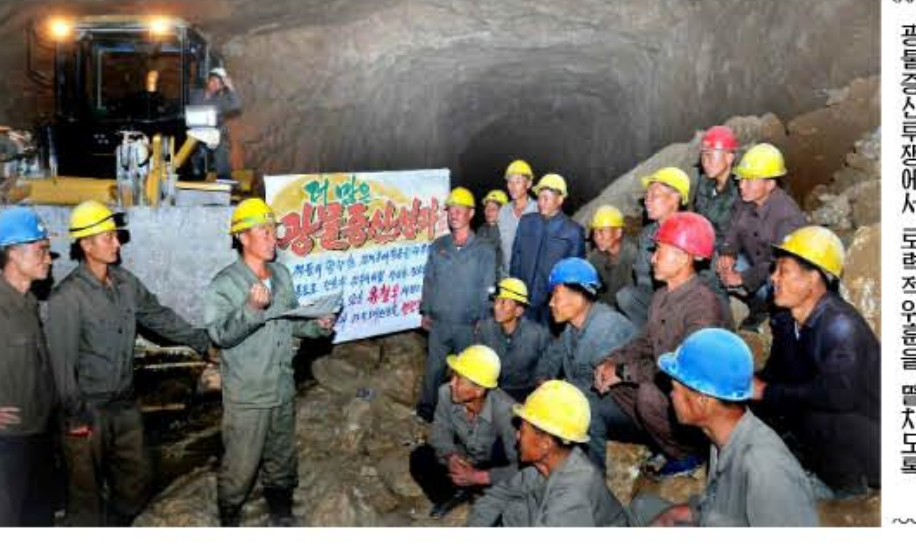
복 하였다. 그 나날 그는 높은 국가 수훈을 받아내고

직명초급일꾼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올리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부강조국의 래일이 앞당겨진다

건설장치의 용감한 수리개들

속도전 청년들 격대 제2려단 전투원들

양각도축경기장이 온 나라 인민의 관심속에 모습을 일신하고 있다. 호각소리, 팔채들을 가득 싣고 들어서는 자동차들의 경적소리가 대강의 유정한 물소리와 어울려 창조의 교향곡을 울리는 양각도축경기장경전보수공사장, 여기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다.

공사를 훌륭히 완공할 열의를 안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는 이곳 건설자수들은 속도전 청년들 격대 제2려단 전투원들도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의욕을 더욱더 높여야 합니다.》

지난 9월 어느날 려단앞에 새로운 전투과제가 나왔다. 높이가 수심m나 되는 경기장의 강철보에 대한 절강조립과 미장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어려운 과제였다.

열의 계산해보아도 강철보를 따라 올라갈 발판조립에 쓰일 발판만 해도 그 량이 간단치 않

았다. 당시 려단에 있는 발판을 가지고서는 어렵도 없었다.

발판을 해결할 무슨 보충한 수가 없었는가.

은 려단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썼다. 현장에서는 협의가 매달리고 같이 진행되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밤도가 나가지 않아 모두들 속삭해하고있는데 누군가가 《오늘 사들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라가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했다. 그 말에 모두들 엉터러없는 소리라고 웃음을 머뜨렸을 때였다. 돌격대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려단장 리금철 동무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발판을 천정에 매는 방법으로 조립하는 것이 어떻겠소?》

《말할만 새둥지처럼 말이요.》

(발판을 천정에 매달라나!?)

모두들 놀라온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리금철동무는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가며 발판조립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원리를 간단했다. 밑에 발판을 세우면서 올라오던 종전의 방식과는 달리 천정에 있던 수제구멍들을 리용하여 발판을 고정하고 발판을 조립하는 방법이었다. 그렇게만 되면 수백대의 발판만 있어도 수백대의 발판만 쓰일 수 있다.

자기 힘을 믿으면 발도는 생

기다 수리개가 되었다고 지원했다. 누구나 이번 전투에서 세우게 될 위훈에 대한 생각으로 잠잠하지 못하고있던 어느날 이른 새벽이었다. 리금철동무는 오래도록 발판을 올려다보았다.

(저 발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어떻게 장만할수 있겠는가. 그곳으로 대원들을 올려보낼수는 없다. 하디면...)

이때 려단시공부참모장 한성철 동무가 다가왔다.

《혼자 올라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안됩니다. 저기엔 이 려단장이 올라가야 합니다.》

《뜨거운 눈빛들이 오고있다. 그들은 억제 손을 맞잡았다. 그 찰나에 여러명의 지휘관들이 달려나왔다. 그들의 생각도 똑 같았던것이다.》

얼마후 그들은 발판위에 올라섰다. 전동승은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순간에 오이 화려한 나뭇잎도 젖어들었다. 그들은 발판을 잡고 흔들여보았다. 끄떡없었다.

《여기서 저를 해도 일없겠구나.》

려단장의 말에 지휘관들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다. 투쟁을 밝아오는 수도의 새벽빛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슴은 이룰

평양건설공장 공업시험소 청년기술자들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정정용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기어 이 우리 식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청년기술자들은 강의한 의지를 안고 거두려는 실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기어이 몇달만에 인쇄조종장치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고야말았다.

조국을 위해 바치는 그들의 헌신의 탐과 영정은 이렇듯 하나하나의 기술혁신성과를 통해 소중히 쓰였다. 새로운 위생자기모형을 설계제작한 송국성, 최혁신동무들, 자기수감부를 우리 식으로 만들어낸 박영혁동무...

올해에 들어서도 김정호, 리선봉동무들이 수임에 의존하던 도자기장식용회차와 위생자기실용용다단소성로의 온도조종장치를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이곳 청년기술자들은 순간의 침체와 담보로 뜨르고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마감건의 수제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하나를 연구해도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게!

이런 지향을 안고 계속 전진해나가는 그들의 심장은 이렇게 뛰고있었다.

침담과련의 앞장에 우리 청년들이 서리라!

본사기자 리 건 일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청춘시절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춘시절의 첫걸음은 사람의 인생에 남는 흔적은 크다.

꿈같은 학창시절을 마치고 당과 어머조국을 위한 보좌관실현의 첫 자취를 내디디게 되는 청춘시절의 첫걸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내딛었는가 하는 그것은 인간의 삶의 지향과 목적을 결정하며 생동하게 비쳐준다.

이제 아침

29일까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였으며 6월 3일에는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2배로 넘겨 수행했다. 얼마전에는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4배로 넘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혁신의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청춘시절 군인전신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영광의 기년사건도 겪었다. 아버지는 학창시절을 마치고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수풍호반에 올려퍼지는 《바다의 노래》

벽동군어로사업소 《여성》호의 처녀어로공들

지 않을수 없었다.

보이는것은 산과 물뿐인 이런 외진 곳에서 꿈같은 처녀시절을 보내고있는 처녀어로공들이 돌보이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를 더욱 감동시킴은 당의 뜻을 받들어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차게 벌여나가고는 처녀어로공들의 생기발랄한 모습이었다.

우리가 도착하니 《여성》호 선원들은 벌써 몇기째 물고기 그물을 끌어올리고 다음물고기잡이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어떻게 되어 꿈도 희망도 많은 20대 꽃나이처녀들이 어로공일 걸음을 옮겨 퍼졌는가 하는 우리의 물음에 신장 김은향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도 두에삼달인 민들에게 사시정형선한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몸소 우리 《여성》호 처녀어로공들의 물고기잡이모습도 보여주시고 곁에 불러 사람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산속의 바다》에서도 황금해의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처녀어로공들의 신심과 락관에 넘친 노래소리는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어느덧 그물을 다 치고 기슭에 다다른 처녀어로공들이 물소리를 맞추어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

목적까지 끌리는 그물우로 펄떡펄떡 뛰여오르는 물고기들이 우리의 마음도 즐겁게 하여 주었다.

《신장동지, 이 그물에 수풍호의 물고기들이 다 들어있는것 같지 않습니까?》

처녀어로공들속에서 막방이로 불리우는 김지향동무가 신이 나서 말했다.

《원 걱정두, 아무쪼록 네가 시집갈 때 결혼상에 오를 물고기가 없을거야.》

신장동무와 이름이 똑같이 《여성》호로 불리우는 신원 김은향동무의 익살스런 목소리에 어 한 웃음이 한바탕 터져 오른다.

지배인의 말에 의하면 《여성》호는 사업소적으로 제일 먼저 연간 물고기잡이계획을 끝냈다고 한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보았다. 수습하고 평한 처녀들이었다. 하지만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안고 사는 처녀들인가.

수풍호반에 처녀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다면 산속에서도 황금해의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처녀어로공들의 노래소리다.

정 영 철

청춘시절의 첫걸음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청춘시절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춘시절의 첫걸음은 사람의 인생에 남는 흔적은 크다.

꿈같은 학창시절을 마치고 당과 어머조국을 위한 보좌관실현의 첫 자취를 내디디게 되는 청춘시절의 첫걸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내딛었는가 하는 그것은 인간의 삶의 지향과 목적을 결정하며 생동하게 비쳐준다.

이제 아침

29일까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였으며 6월 3일에는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2배로 넘겨 수행했다. 얼마전에는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4배로 넘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혁신의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청춘시절 군인전신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영광의 기년사건도 겪었다. 아버지는 학창시절을 마치고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대상공사를 다그쳐 끝낼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리 건 명 찍음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들어쥐고

청암바다련어사료보장수산업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청암바다련어사료보장수산업사업소는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단위이다. 그러던 수산업사업소가 오늘날은 지역자장으로 일떠서는 단위, 흥하는 단위로 소문을 내고있다.

수산업사업소에서는 해마다 높아지는 수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완수하고있다.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높아진 연간 수산물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이것은 2년전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생산실적을 기록한것으로 된다.

한시대에 번듯하게 일떠선 2층짜리 종합청사, 연건축면적이 수백평에 달하는 평동장과 가공장, 아담하게 꾸려진 편의봉사기, 축산기, 온실, 비섯생산기지...

몇해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관념과 믿음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의 선진적인 힘을 넓으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풀어 나가야 합니다.》

몇해전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행정조직의 열의는 높았다. 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사업소를 도적인 본보기단위로 꾸

림 결성이 그의 가슴속에 고쳐 때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목표를 통이 크게 내세운 그는 만만치 않은 일을 가지고 수산물생산선투를 조직지휘하였다.

자재와 물자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려던 안장에서 대중을 이끌었다. 하지만 한해후의 결과는 그의 기대에 닿지 못하였다. 지배인이 앞채를 메고 뛰여 다니고 어로공들과 양식공들이 바다에서 살다있으면서 아글라글하였지만 생산실적은 전혀 별반 차이가 없었던것이다.

특히 발조개생산실적이 시원치 않았던것이다.

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려는 것은 그의 주관적욕망에 불과하였던 말인가.

바로 이때 지배인에게 힘을 주고 방도를 깨우쳐준것은 당조직이었다.

《중요원들이 지배인동무의 얼굴을 쳐다보고있습니다. 맥을 놓지 말고 우리 힘을 합쳐 생산을 늘일 방도를 찾아봅시다. 제 생각에는 기성리엔에 메달리리 말고 사업소수정에 맞는 새로운 발조개양식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지배인동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초급당일군의 말은 지배인에게 중요함을 깨우쳐주었다.

《그렇다. 유망한 앞세우기 말고 모든 사업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전개하자.》

지배인은 발조개의 생리특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발조개양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보건실천에서 철박하게 요구되는 새로운 의학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고려의학을 과학화하며 최신의학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합용정형의파병원 의료인공들이 미세외과부문에선 선진기술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치료에 방기관들이는 기능전단반, 미세수술술과 같은 여러가지 선진적인 진단과 치료방법을 치료에 방사선에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병원의 의료인공들은 미세외과수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그것을 립상

미세외과부문에선 이룩된 의료기술성과

합용정형외과 병원의 의료인공들이 미세외과부문에선 선진기술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치료에 방기관들이는 기능전단반, 미세수술술과 같은 여러가지 선진적인 진단과 치료방법을 치료에 방사선에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병원의 의료인공들은 미세외과수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그것을 립상

생산돌격전의 불길높이

맹산탄광에서

과를 완수하는 원수의 가슴속에 투구명을 내는 심정으로 착안기를 억세게 들어치고 원공구업을 힘있게 몰아대며 매일 순계계획을 150%이상 넘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송영남, 김영철동무를 비롯한 열의충진자들은 합리적인 생산방법들을 현실에 적극 받아들여 매일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특히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굴진효율을 최대한 높이며 채탄실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고있다.

막장마다에 전투적기백이 넘쳐나는 직관전진물들을 집중배치하는 한편 탄부들속에서 발포되고있는 혁신적기술들을 제때에 소개선진하여 생산자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키나고있다.

리인철동무를 비롯한 탄광의 일군들이 올해 석탄생산목표를 점명하기 위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혁신적인 안목과 과학

